

“월드컵 최다 골보다 팀이 우선”

4번째 월드컵 출격 앞둔 손흥민

안정환·박지성과 3골 공동 최다 골만 더 넣으면 단독 1위 올라 MLS에서 14경기째 무득점 부진

“기록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차분 “컨디션·몸상태 어느 때 보다 좋아 팀 위해 뛰면 골은 절로 뚫릴 것”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서..”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LAFC)은 개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득점하면 새 역사를 쓴다.

이번이 4번째 월드컵 무대인 손흥민은 앞선 대회에서 3골을 넣었다.

2014년 브라질 대회 알제리전에서 월드컵 데뷔골을 넣었고,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는 2골을 신고했다.

멕시코를 상대로 전매특허인 감아차기 슈팅으로 득점했고, 독일과 경기에서는 막판 ‘폭풍 드리블’에 이은 결승 골로 카잔의 기적’을 완성했다.

안정환, 박지성과 함께 한국인 월드컵 최다 득점 공동 1위에 올라가 있는 손흥민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이 부문 단독 1위가 된다.

하지만 26일(현지 시간) 오후 홍명보호의 사전캠프 훈련지인 미국 유타주 헤리먼의 자이언스 बैं크 트레이닝 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난 손흥민은 대기록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그런 기록에 대한 내용을 안 들을 수가 없다.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팬들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 나도 듣고 보게 된다”면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사커(MLS) 정규리그 14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었다. MLS에서만 인정하는 ‘간접 도움’까지 포함해 도움만 9개를 올렸다.

이날 그의 득점력 저하와 관련한 질문은 취재진 누구도 하지 않았다.

손흥민이 스스로 득점이 없는 상황에 대해 말했다. 그는 “리그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데, 내가 걱정하는 건 경기를 잘 못 했을 때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좋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인터뷰에서 농담으로 ‘월드컵을 위해 (골을) 아껴놨나 보다’라고 한 적이 있다”며 웃었다. 이어 “팀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팀이 어

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득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태까지 그렇게 축구 선수 생활을 해왔고, 그 마음은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연합뉴스



뮌헨 케인 ‘31경기 36골’ 유럽 최연 골든슈 수상

잉글랜드 국가대표 공격수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이 통산 두 번째로 유럽프로축구 득점왕에 올랐다.

바이에른 뮌헨은 27일(한국 시간) “케인이 유럽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유럽 최연 골든슈’를 수상했다”고 알렸다.

케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뮌헨 유니폼을 입고 독일 분데스리가에 데뷔한 2023-2024시즌(32경기 36골)에 이어 두 번째다.

아울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는 게르트 뮐러,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르셀로나)에 이어 세 번째로 2회 수상한 선수가 됐다.

2025-2026시즌 뮌헨에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 51경기에 출전해 무려 61골을 터뜨린 케인은 분데스리가에서만 31경기에 출전해 36골을 몰아넣고 세 시즌 연속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유럽스포츠키미디어(ESM)가 수여하는 유럽 최연 골든슈는 리그 수준을 고려해 득점당 가산점을 달리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로 수상자를 가린다. 정규리그를 기준으로 5대 리그인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리그 소속 선수들의 득점에는 1골당 2배의 점수를 부여한다.

6-22위 리그는 1골당 1.5배, 그 아래 리그는 1골당 1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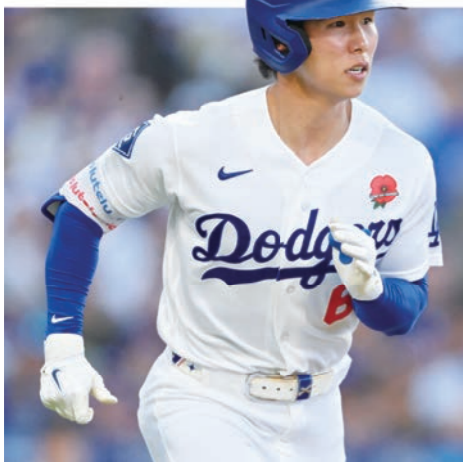
케인은 36골로 72점을 얻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27골(54점)을 넣은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을 제쳤다.

지난 시즌 수상자였던 스페인 라리가의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는 25골(50점)로 3위에 머물렀다.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 AFP·연합뉴스

베츠 돌아오고 에르난데스까지 복귀... 설 땅 좁아진 김혜성



타율 0.314→0.257으로 하락 타격 부진에 감독조차 우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는 김혜성(사진)이 최근 경쟁자들의 연이은 복귀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다저스 소식을 주로 다루는 ‘트루블루 LA’는 27일(한국 시간) 경쟁자들의 복귀로 김혜성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다저스는 부상 이탈했던 핵심 전력들이 복귀하고 있다.

우측 복사근 염좌로 5주 동안 결장했던 주전 유격수 무키 베츠는 12일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면서 꾸준히 선발로 출전하고 있다.

또 2월 팔꿈치 수술로 이탈해 있던 ‘유틀리티맨’ 엔리케 에르난데스가 전날 복귀전을 치렀다. 에르난데스는 복귀전에서 9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2안타 1타점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발목 수술을 받았던 또 한명의 유틀리티 자원 토미 에드먼 역시 곧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경쟁자들이 돌아왔지만 최근 김혜성의 타격 감각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빅리그 복귀 이후 3할대 타율을 유지하다가 최근 타율이 0.257(113타수 29안타)로 하락했다.

매체에 따르면 로버츠 다저스 감독 역시 김혜성의 타격 부진을 언급했다. 그는 김혜성에 대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을 너무 많이 쫓아가는 경향이 생겼다”며 “적극적이어야 할 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리고 있다”며 “지난 한 달은 그에게 꽤 힘든 시간이었다”고 했다.

올 시즌 트리플A서 시작한 김혜성은 지난달 6일 베츠의 부상 이탈로 풀업됐다. 베츠의 복귀 때 알렉스 프릴랜드가 마이너리그로 가면서 잔류에 성공했다. 김혜성이 다시 타격 감각을 끌어올려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 AFP·연합뉴스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화제의 신간

58세 신예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